

與, 새 공천룰로 단체장 총선출마 ‘첼퇴’

“사퇴시 경선서 25% 감산…보선 야기 지자체 예산 낭비”

청년·여성·정치신인 인센티브 강화…최고위 거쳐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역 자치단체장 출마자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출마가 어렵도록 공천룰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와 이에 따른 당 이미지 실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엄중 조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5%를 감산하기로 했다”며 “현직 단체장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확실한 페널티”라고 밝혔다.

현직 단체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고 총

선에 출마하는 경우 민주당은 그동안 10%의 감산 규정을 적용해왔다.

최근 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페널티 강화를 위해 감산 비율을 10%에서 20%로 2배 높이기로 의결했으나,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해 이를 25%로 한 단계 더 높기로 했다.

이에 대해선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잠정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단이 제시한 공천물이 오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의결될 경우 물밑에서 총선을 준비해왔던 현역단체장 상당수가 출마 의사를 접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이 총선에 나서면 그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을 국가나 광역단체가 아닌 해당 기초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며 “그러면 보궐선거를 야기한 정당에 여론이 악화하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일하고 있는 구청장 출신 비서관들이 있지 않은가”라며 “당이 그런 식의 루트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청년, 여성, 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점의 실효성을 높여 ‘소의 계층’의 정치 참여 문호를 더욱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천 심사 단계에서의 가점과 경선 단계에서의 가점을 동일하게 맞추도록 청년 등이 확실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천룰을 설계했다.

이는 당정청이 이날 ‘중장기적 청년정

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어려움은 청년이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밖에 민주당은 앞서 공천제도기획단 차원에서 발표한 대로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략 공천은 하지 않는 쪽으로 원칙을 마련했다.

또한 경선 반영 비율을 지난해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일반 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정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뒤 윤호중 사무총장과 강훈식 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된 공천룰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황주홍, 농어촌 미세먼지 감소 법안 발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1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적인 폐기물 소각 및 매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폐기물이나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농어촌을 만드는 데 주민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송갑석, ‘5·18기념재단’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은 2일 5·18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법정단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5·18 기념재단의 설치 및 활동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념재단은 법정단체가 되어 5·18정신 계승 사업을 더욱 탄탄히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5·18에 대한 국우세력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었고, 자유한국당도 망언 괴물 3인방에게 경계계라는 면죄부로 온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은 기념재단이 일부 야당을 비롯한 국우세력들의 5·18역사왜곡에 적극 대처하고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라고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김진수기자

민주 “돌아오라, 국회로…추경·민생법안 시급”

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발

국회본관 앞 집단 삭발식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난하며 ‘국회 정상화’ 압박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물론 여야가 정쟁을 벌일 수도 있고 다투고 싸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거듭 요청한다. 한국당은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너무나 많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동물국회도 모자라 이제는 장외투쟁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다.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의원은 “국회 임무를 방지하고 뛰쳐나간 한국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닌 ‘돌아오라, 국회로’”라고 촉구했다.

홍의락 의원은 “포항 지진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논의와 특별법 제정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기약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여



퇴원하는 문화상 국회의장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입원 치료를 받아온 문화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퇴원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달 24일 선거법,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을 향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 60여명과 논쟁을 벌이다 저혈당쇼크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연합뉴스

리 차례 한국당에 요청했다.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과 추경안 등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조성된 것뿐”이라며

“민생·경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민과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집단 삭발했다.

지난달 30일 박대출 의원이 스스로 머

리를 민 데 이어 김태흠·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과 이창수 총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전희경 대변인은 삭발식에서 “한국당의 삭발식은 폭주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비폭력 저항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평화 광주시당 “황교안 장외투쟁 적반하장”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은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광주방문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한국당 장외투쟁은 적반하장, 5·18왜곡 처벌 특별법 등 신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시당은 “한국당이 3일 광주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의 정당성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장외투쟁을 예고했다”며 “국회 난장판과 폭력 사태로 비판을 받는 마당에 방귀 췌놈이 화내는 꼴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체제의 전위대 역할을 한 한국당이 민주주의 성

지인 광주에서 석고대죄를 청해도 부족할 판에 ‘독재타도’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국회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해 검히 사죄하고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매달릴 게 아니라 선거법과 개혁입법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선해 5·18 왜곡처벌 특별법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신속히 처리하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3일 오전 광주송정역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김대이기자

평화, 원내대표 합의추대 추진…천정배 물망

민주평화당이 오는 7일 임기를 마치는 장병완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새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천정배 의원(광주 서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2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두 세 분 정도가 차

기 원내대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워낙 경력이 막강한 분들이라 합의 추대를 시도할 것”이라며 “오는 9일 전에 합의 추대가 안 되면 경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 외에 4선의 조배숙 의원, 3선의 유성엽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 야외 결혼식
- ▶ 칠순잔치
- ▶ 체육대회
-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